

<2026년 수능 대비>

정도(正道) 세계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중요 개념 Blank 정리



[]님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01 4대 문명			
인도 문명	성립	• 기원전 2500년경, []강 유역에 도시 문명 출현, []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	
	특징	유적	• []와 모헨조다로(계획도시 → 벽돌로 쌓은 성벽, 포장도로, 하수 시설, 공중목욕탕, 곡물 창고 등을 갖춘) 도시의 서쪽 끝에는 거대한 성채가 있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통치자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헨조다로의 거대한 성채는 평지보다 12m나 우뚝 솟아있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방과 망루가 있는 거대한 옹벽으로 보호되었다. 정상부에 있는 공공건물 중에는 한 변이 거의 27m나 되는 사각형 모양의 회당이 있는데, 아마도 통치자가 청원인, 관리들을 접견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문화	• 청동기와 상형 문자 사용, <u>인장(印章)</u> 사용
		대외	• [] 지역과 교류
[]인의 이동	이동	•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 ⇨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의 편자브 지방 정착 ⇨ 기원전 1000년경 갠지스강 유역 진출	
	특징	• 철제 농기구 사용, [] 제도 형성	
	종교	• []교, 자연 현상 등을 찬미하는 [] 제작	



<[]의 대목욕탕>



<아리아인의 이동>

제1계급 브라만 (사제)	제사 담당
제2계급 크샤트리아 (무사·귀족)	정치·군사적 업무에 종사
제3계급 바이샤 (평민)	농업·목축·상업에 종사
제4계급 수드라 (노예)	각종 천업에 종사

<[] 제도>

02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기원전 6세기경 불교·자이나교의 출현	- 기원전 7세기경 갠지스강 유역에서 도시 국가 간의 전쟁 빈번, 상업 발달 ↳ 크샤트리아와 바이사 세력의 성장 →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제사 의식 반대, [] 중심 사회 비판 - 불교 : 고타마 싯다르타 창시, 인간 평등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 강조 - 자이나교 : [](마하비라) 창시, 고행과 금욕 강조
[] 왕조 (기원전 317~기원전 180)	[] 원정군의 인더스 유역 침공으로 통일 자극 [] : 북인도 통일, 왕조 개창, [](수도), 셀레우코스 1세와 평화 협정 체결(기원전 306)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셀레우코스는 주군(主君)의 사후에 소아시아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였다. 한때 그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자 부대를 거느리고 인더스강 유역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는 [] 왕조의 군대에 패배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넘겨주고 말았다. [] 왕조의 영토는 남부 인도를 제외하고 아라비아해로부터 벵골만까지 이어졌으며 북으로는 카불까지 뻗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도에 거대한 중앙 집권 왕조가 출현한 것이었다. []는 이 거대한 왕조의 수도였다. []왕(아육왕, 재위 기원전 270~기원전 230) : [] 정복,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 : 불경을 정리하고 []과 같은 불탑(스투파)과 [](돌기둥) 건립 : 불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언 → [] 불교(개인의 해탈 강조) 발달, 동남아시아의 시암·실론 등에 포교단 파견
[] 왕조 (30~275)	[] 계통의 쿠산족이 건국, 서북부 지역 [] 중심 사카인을 몰아낸 그들은 인도의 북부 지방에 [] 왕조를 세웠으며 급격하게 영토를 확장하였다. [] 왕조는 남쪽으로는 바라나시에서 빈디아산맥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카슈가르, 야르칸드, 호탄을 두루 거치며, 서쪽으로는 파르티아와 경계를 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펀자브와 카슈미르를 포함하는 북인도 일대와 중앙 아시아의 일부를 지배한 셈이었다. [] 왕조는 300년 가량 존속하였는데, 이는 남쪽에서 안드라 왕국이 존속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였다. 처음에는 중심지가 카불이었는데, 나중에 []를 수도로 삼았다. - 중국([]), 인도,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계 무역으로 번영 [] 왕(재위 128~151) :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최대 영토 확보, 불교 지원과 포교에 노력(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 [] 불교 발달 → 중생의 구제 강조,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 [] 미술 양식 등장 : 인도 서북부의 [] 지방에서 발달, 인도 문화와 [] 문화의 융합, 불상 제작 : 대승 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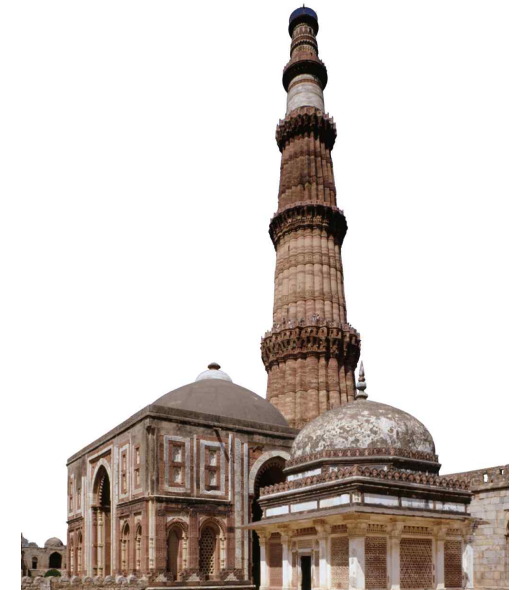
03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왕조
(320~550)

- 1세(재위 320~335) : 북인도 재통일, 갠지스강 유역의 []에 도움
 - 2세(재위 380~415)
: 벵골만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 확장(최대 영토 확보), 학문과 예술 적극 장려(독자적인 인도 문화 발전, 칼리다사의 활약)
 - 페르시아와 접경, 5세기경 []의 침입과 왕위를 둘러싼 내분 → 6세기에 멸망
 - []의 발전
: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 및 다양한 민간 신앙이 융합, 브라흐마·비슈누·시바·라마 등 다양한 신을 숭배, 왕들이 자신을 []에 비유하며 후원
: []에 따른 의무 수행 강조, [] 정비(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영향)
 -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인도 고유의 특색 강조)
: [] 문학([]의 『사쿠타라』(희곡)·『메가두타』(서정시), 서사시인 『마하바라타』·『라마야나』 등이 정리됨)
: [] 양식[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특색 융합, [] 석굴 사원·엘로라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 등] →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영향
- [] 왕조 시기에는 고대 아리아인 문화가 대대적으로 부활하였다. 공식적인 궁정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였으며,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시와 희곡이 눈부시게 꽃피었다. 저명한 문호 칼리다사도 ‘궁정의 아홉 개의 보석’ 중 한 명으로 총애를 받으며 활약하였다. [] 왕조 시기 **아리안주의, 힌두주의의 부활**은 불교계에는 당연히 반갑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불교가 심하게 박해를 받은 일은 없었다. 불교 사원은 존속되었고 불교가 번성한 실론의 지배자와 우호 관계도 이어졌다. 또한 이 무렵 동진의 승려 []도 [] 왕조를 방문하였다.
- 자연과학의 발달
: 오리엔트 천문학 수용, **영(0)과 10진법 사용** → 이슬람 세계의 자연과학 발달에 기여
: [] [원주율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 추산, 지구 자전(自轉)의 이해]
 - 동진(317~420)의 구법승 []의 불교 성지 순례와 율장(律藏) 필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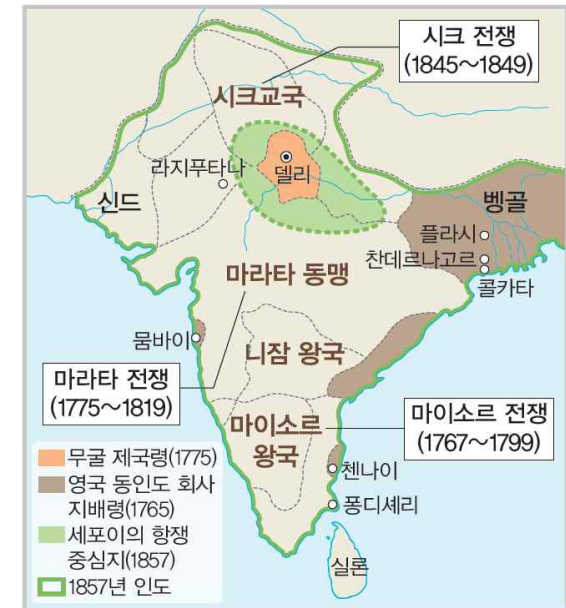
04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이슬람 세력의 침입	8세기경부터 인도 서북부에 침입
가즈니 왕조(962~1186)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북인도의 [] 지역 차지, 힌두교 사원 공격(마흐무드), 페르시아·튀르크·이슬람 문화의 융합
구르 왕조(1187~1215)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장(1190년경), [] 장악(1192), 불교·힌두교 사원 파괴
[] 왕조 시대 (1205~1526)	[]가 델리를 정복한 후 이슬람 왕조 수립([] 건립), 이후 델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왕조들이 세워짐, 북인도 지역 지배 ↳ [] 왕조(1205~1290) ⇨ 할지 왕조(1290~1320) ⇨ 투글루크 왕조(1320~1413) ⇨ 사이이드 왕조(1414~1451) ⇨ [] 왕조(1451~1526) - 벵골·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만 납부하면 다른 종교의 신앙 인정, 카스트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함 -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인도·이슬람 건축 양식, []어 성립



05 무굴 제국(1526~1858)	
성립	• (①, 재위 1526~1530) : 티무르의 후손, 술레이만 1세의 지원, 북인도 진출, 전투(이브라힘 로디 격퇴, 1525), 건국(, 1526)
발전	• (③, 재위 1556~1605) : 수라트 침공(1573),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아그라(Agra) 천도 : 중앙 집권 체제 확립(행정 관료 조직과 지방 행정 구역 정비) : 종교적인 정책 추진 만일 어떤 참된 진리가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왜 생긴 지 겨우 천 년 정도밖에 안 된 이슬람교와 같은 한 종교에만 진리가 존재해야 하는가? ↳ 힌두교의 성지 순례 시 부과하던 통행세 폐지, 폐지(1579), 전쟁 포로를 이슬람교도로 강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 제정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시도[힌두교도를 관료로 임명,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라지푸트족 출신 조다와 정략결혼, '조다와 아크바르')] • 샤자한(⑤, 재위 1627~1658) : 묘당 축조(아그라, 1631~1653) • (⑥, 재위 1658~1707) : 을 넘어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최대 영역 확보) : 이슬람 제일주의 지향 → 부활(1679), 힌두교 사원 파괴 ⇔ 라지푸트족(힌두 세력)의 반발, 의 저항(편자브 지방, 고빈드 싱 지도), 왕국 수립[시바지, 힌두의 독립 국가(스와라지) 표방, 1674] : 비비 까 마크바라(가난한 타지마할) 건축(아우랑가바드, 1678)
쇠퇴	• 동맹의 반란(중부 인도, 1720~1818), 영국과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이 침투하여 세력 확장 나는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항구에 명하여 영국의 모든 상인들을 내 친구의 신민으로 맞이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겠다고 선택하든지, 그들은 환대를 받고 만족스럽고 안전한 거처를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기를 원하든지 그들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항구에 도착하든지 포르투갈이든 어느 누구든 그들의 평화를 감히 깨지 못할 것입니다. [해설] 자료는 무굴 제국의 자한기르 황제(④, 재위 1605~1627)가 1618년 영국의 제임스 1세에 보낸 서신(書信)의 일부이다. 17세기 전반 인도에 진출한 영국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를 제압하고 뭄바이, 콜카타, 마드라스 등에 근거지를 확보하여 교역을 확대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인도에 진출한 프랑스는 남인도와 벵골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영국과 대립하였다.
경제	• 인도양 무역 발달(면직물·향신료 등 수출) → 신향료 개척 이후 서양 상인 진출
인도 문화·이슬람 문화의 융합	• 언어 : 힌두어에 페르시아어와 아랍어 등이 합쳐진 가 널리 사용됨, 공식 문서나 외교에서는 사용 • 종교(이슬람교 발전, 대체로 힌두교 등의 다른 종교 인정) : [나나크 창시, 편자브 지방에서 발전, 유일신,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남성들의 성씨로 '싱' 사용, 황금 사원(신의 집,)] • 건축 : (힌두 양식, 이슬람 양식, 페르시아 양식이 혼재), 무굴 회화 발달(페르시아 세밀화와 인도 양식의 조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 왕조**의 공식 언어는 페르시아어였다. 궁정이나 관청과 관련된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그 때문에 많은 힌두교도가 페르시아어를 배웠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로운 말들은 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실제 어는 새로운 언어라기보다는 페르시아어의 단어가 비교적 많이 섞여 들어간, 비유하자면 기존의 언어에 조금 색다른 옷을 입힌 것에 지나지 않았다.



06 인도의 민족 운동	
영국의 인도 침략	• 빈번한 전쟁,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인한 무굴 제국의 쇠퇴 → 동인도 회사의 활동
전투 (1757)	• 영국 ⇄ ·벵골 연합군 → 승리 ↳ 동인도 회사의 벵골 지방 징세권 획득(1765),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조장과 크리스티안교로의 개종 강요, 인도 통치 규제법 제정(총독제 통치, 1773)
운동 (1828)	• (1772~1833) 주도 • 순수 힌두교 교리로의 복귀 등 종교 운동으로 출발하여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 카스트제 반대·사회적 폐습 타파 주장
 (1857~1859)	• (페르시아어로 병사,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의 종교적 반발 • 랍 슈미 바이의 저항(델리 점령, 북인도 장악) • 무굴 제국 황제 바하두르 샤 2세(재위 1837~1857) 폐위 → 제정(1858) → 의 인도 지배권 박탈(1876) →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이 인도 제국 황제 겸임] 19세기 중반에 영국은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북인도를 중심으로 이/가 일어나면서 인도는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했던 독립국의 지위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에 가담한 군인들을 비롯한 항쟁 세력들은 마지막 황제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결국 황제마저 미안마로 추방되는 구실이 되었다. 이후 영국 의 인도 지배권은 박탈되었다.

06 인도의 민족 운동	
의 활동	• 영국의 지원으로 결성(지식인·관리·지주·자본가 등 주도, 뭄바이, 1885) → 초기 영국에 협조하며 인도인의 권익 확보에 주력(점진적·합법적 운동) • 반영 운동 전개 ① 영국이 서벵골(힌두교도 다수)과 동벵골(이슬람교도 다수)로 분리 통치하고자 발표(1905) 통합되어 있는 벵골은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다. 벵골을 분리하면 강력한 세력을 몇 개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점은 국민회의 지도자들도 느끼고 우려하는 바이다. 그들의 우려는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분할 계획이 가져올 큰 이점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 <u>우리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의 통치에 대한 견고한 적대 집단을 분리하여 약화시키는 것이다.</u> ② 틸라크 등이 주도한 대회에서 (자치)· (국산품 애용)·영국 상품 불매·국민교육 진흥의 4대 강령 채택 나는 벵골 분할과 운동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벵골 분할에 벵골인은 아주 큰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인의 잔인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언젠가는 바로잡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벵골인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매우 잘 드러내어서 내가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는 근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몇 년 전부터 봄베이에서 존재해 오던 것입니다. 나는 자유무역주의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데시가 경제적 혼란 상태에 있는 인도에서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오로지 - ③ 영국의 벵골 분할령 철회(1911),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허용
전 인도 이슬람교도연맹	• 영국이 인도 국민 회의와 대립 조장하기 위해 결성 지원(1906) ⇨ 인도 국민회의를 지원하여 반영 운동 전개
제정(1919)	• 자치권의 확대를 약속받고 제1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정부에 협력 ⇨ <u>인도 총독이 인도인을 구속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투옥</u> 등으로 인도의 민족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
 (1869~1948)	• 롤렛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 요구, 사티아그라하(‘진리를 찾으려는 노력’) 조직과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전개 • 공직 거부, 국산품 애용, 납세 거부 등 → 암리차르 학살 사건(1919. 4월) • 영국의 소금법(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 제정 ⇨ <u>소금 행진</u>(사마르마티 아쉬람에서 구자라트 해안가 단디까지 행진, 1930. 3월)

06 인도의 민족 운동	
인도 독립 동맹	• [] (1889~1964) 주도, 결성[1928년(『비상 교과서』)·1929년(『미래엔 교과서』)] • 인도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며 파업과 무력 투쟁 전개
[] (1935)	• 인도의 각 주에 대해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 인정
독립(1947. 8. 15.)	• 인도,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서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 → [] 분리 분쟁 발발 

07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 앙코르 톰(대왕도), [] 건립(12세기 [] 제국, 힌두 사원 → 불교 사원)
베트남	• 응우옌 왕조(후에, 1801~1945), [] 전쟁(1884~1885) → []의 보호국 → 함응이 황제의 근왕 조칙과 근왕 운동(1885) • [](1867~1940) : 베트남 유신회 조직(1904), [] 운동(청년들을 일본에 유학, 1905~1909), []에 자극받아 베트남 광복회 결성(광둥, 1912)
	•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1886)
말레이시아	• 므라카 왕국 : 이슬람 왕조, 중계 무역으로 번성 ↳ []에 정복(1511) → []의 지배(1641~) → [] 말레이 연방(1895)
인도네시아	• [] 사원 : 8세기 중엽 샤일렌드라 왕조(650~856)의 건립, 대승 불교 사원 • [] 동인도 회사(1602), 자와 전쟁(1825~1830), [] 동인도 건설(1904) → 강제 재배 제도
	• []의 식민 지배(1837~) → [] 전쟁(1898) → []의 식민 지배 • 호세 리살(1861~1896) : 『나에게 손대지 마라』 저술(가혹한 식민 통치 고발, 1886), []인과 동등한 대우 요구, 필리핀 연맹 조직(1892), 『마지막 이별』(1896) • 아키날도(1869~1964) : [] 지지, 필리핀 공화국 선포(1899), []에 대항·체포(1901)
시암(타이)	• 짜끄리 왕조(차오프라야 짜끄리의 개창, 방콕 왕조, 1782~) 라마 5세(쥔랄롱콘, 재위 1868~1910)의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 •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동진하는 [], 서진하는 [] 사이에서 완충지대로 독립 유지



▲ []



▲ []

